



KOGA 회장단 및 상임사 대표단...  
대사관과 봉제업체의 애로사항 간담회 가져

# 한국 봉제산업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92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GA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 KOGA 회장단 및 상임사 대표단... 대사관과 봉제업체의 애로사항 간담회 가져



지난 6월 17일 KOGA 회장단 및 상임사 대표단(김화룡 KOGA회장, 이규백 수석 부회장, 홍희준 법인장, 썬김 법인장(한솔), 엄정윤법인장(한세), 고정윤법인장(아모스), 편도균 법인장(세아), 김형근 대외협력 부회장, 김태식 사무총장)과 박수덕 대사대리, 양석환 참사관, 한종호 상무관, 이상전 노무관, Kocham 이강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관세 문제에 대한 봉제업체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



을 나누는 간담회가 대사관 5층 접견실에서 있었다. KOGA에서는 우리 회원사들이 처해있는 어려움, 관세로 인한 문제,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오는 어려움 등등을 전달하였고, 또한 KOGA회원사들

이 인도네시아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Kocham과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 당일 Kocham에서 무역부 차관을 만나서 KOGA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의 2차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자카르타 주지사 “자카르타, ‘경제 수도’ 로 위상 유지할 것”



▲자카르타 정도(定都) 498주년 기념 엠블럼

자카르타 주정부가 동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IKN)로의 수도 이전 계획과는 별개로, 자카르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도’ 이자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라모노 아농 자카르타 주지사는 23일 자카르타 건립 498주년을 기념해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자카르타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50위 안에 들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교통,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자카르타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핵심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자카르타는 과거 순다 플라빠라는 작은 항구에서 시작해 국가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라노 카르노 부지사와 함께한 취임 100일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프라 개발, 삶의 질 향상, 문화 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카르타의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특히 자카르타의 다문화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며,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498년이라는 자카르타의 긴 역사와 유산을 되새기며, 과거 자카르타를 이끌어온 지도자들과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 도시는 수많은 발전의 영웅들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자카르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인천항만공사는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는 22일부터 25

##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스마랑 신규항로 개척 美 관세정책 여파 대응... 현지 선사·화주 접촉, 물동량 유치 총력

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스마랑에서 현지 선사와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천항 신규항로 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 등 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1위 선사 메라투스를 비롯해

코린도그룹, KCC글라스 현지법인 등을 잇달아 방문해 인천항 기반시설과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기항을 제안했다. 또 현지 국적선사 주재원 및 한국 물류기업들과도 만나 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 부사장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장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스마랑항로 개설로 동남아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 李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통화... “첨단 미래산업분야 등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73년 수교 이

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양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 자카르타서 개최... ACSP 이행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는 6월 17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ASEAN-ROK Connectivity For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이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개최한 행사로, 지난 5월 26일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및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사무국, 현지 외교단, 민간 기업 및 한-아세안 연계성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장근 대사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속 지속 확대”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사는 개회사에서 “ACSP 채택 직후 이번 포럼을 시의적절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세안의 장기 전략 이행을 위한 연계성 로드맵 마련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또한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인프라,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왔으며, 앞



으로도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하에 아세안과의 연계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까오 김 후은(Kao Kim Hour) 아세안 사무총장은 “한국은 그간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ACS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계성, 공급망 협력 집중 논의... 실질 협력 가능성 모색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Yose Rizal Damuri CSIS 인도네시아 소장의 진행 아래, Lim Chze Cheen 아세안사무국 연계성 국장이 MPAC 2025 성과 및 새로운 ACSP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기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 이재현 아산연구소 수석연구위원, Phebean Belle A. Ramos-Lacuna 필리핀 민간 파트너십 센터 국장이 참석해 6개 전략 분야 가운데 ▲지

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스마트 도시개발 등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영경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광성일 KIEP 센터장이 공급망 연계성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안종천 LX 인터내셔널 팀장, Rifki Weno ABAC 사무국장, Lily Yan Ing ERIA 선임경제학자가 패널로 참여 무역 환경 변화 속 한국-아세안 공급망 협력의 도전과제 및 해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연계성 협력,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의 핵심 축” 이번 포럼은 아세안의 새 전략 로드맵인 ACSP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간 연계성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아세안 및 한국 측 관계자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연계성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ACSP는 향후 10년간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문서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스마트 도시 개발 등 6개 핵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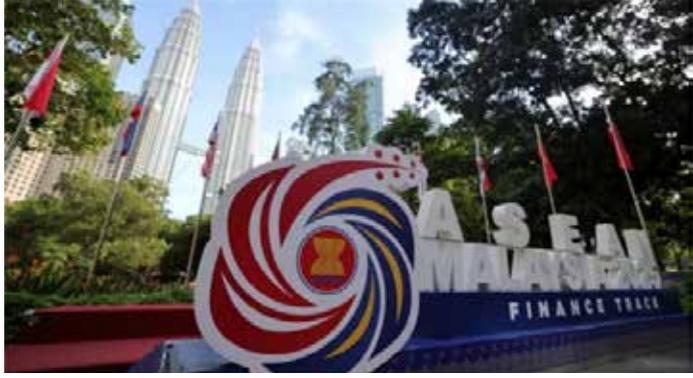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기술 OK 신뢰 OK 안전 OK



# 美-中 공급망 경쟁 심화...베트남·인도네시아 등 8개국 최대 수혜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 “향후 5년 공급망 재편 가속화될 것” 아세안 4개국 포함 개발도상국, 중국 제조업 이전으로 이익 기대



▲아세안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경쟁이 향후 5년간 심화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4개국을 포함한 8개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제조업 이전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1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학술지 이코노미스트에 발표된 이 연구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튀르키예,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을 글로벌 생산 변화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꼽았다. 저자들은 이들 8개국 모두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서구 시장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증가와 미국의 지속적인 수출 수요에 힘입어 이들 8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저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두 가지 유사한 추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프렌드쇼어링’과 ‘중국+1’ 전략은 다국적 기업들

로 하여금 관세 노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다각화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파트너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저비용 지역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지난달 발표된 것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2차 무역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고 비용을 높이며 전략적 재편성을 촉발하는 가운데 공개됐다.

저명한 국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공동 저술한 이 보고서는 10년을 미·중 경쟁의 “결정적” 시기로 제시하는 2023~2033년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2035년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창구로 여겨지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연결했다.

저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미국이 “심화되고 다양한” 도전을 제기할 “고위험 경쟁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 산업 이전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특히 공급망 구성 요소가 크게 성숙해졌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위한 최전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의 지역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IPEF를 언급했다.

이 연구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2018년을 전환점으로 정의하면서 두 초강대국 간의 1차 무역전쟁 전후의 역학 관계를 비교했다. 그 이후로 확인된 8개국 경제가 중국 제조업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의 중간재 수입을 크게 늘리고 완제품의 미국 수출을 증가시켰다고 시사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변동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았지만, 세금 부담은 비슷했다고 저자들은 말했다. 그러나 8개국의 산업 및 물류 인프라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었지만, 산업 기반이 개선됨에 따라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8개국은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와 브라질은 미국 시장과 가깝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가깝다. 한편 튀르키예는 중동,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같은 국가는 EU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관세를 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라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제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이코노믹

## 베트남, 대미 관세율 20~25% 확보 노력

### 미 “중국 제품 환적에 대한 엄격한 집행과 비관세 장벽 제거” 요구 워싱턴 일각,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베트남 낙점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세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20~25% 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베트남이 중국 상품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속에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두 나라 간 협정에는 중국 제품의 환적에 대한 엄격한 집행과 비관세 장벽 제거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베트남이 트럼프 행정부에 특별한 도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베트남 봉제 공장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류에서 스마트폰에 이르는 미국 소비자들의 필수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또 일부 관리들은 베트남과 동남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조정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충분히 낮출 뜻을 비쳤다고 전했다.

[출처] 어패럴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mailto: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http://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 “메이드인 차이나 아니면 OK?” 쉬인, 인도산 의류생산 늘린다

인도 내 공급업체 1,000개로 늘리고 1년 내 글로벌 출시



▲쉬인이 관세 타격을 피해 인도 공급업체의 의류생산을 늘리고 있다. 사진=Stock

쉬인이 인도 공급업체 기반을 급속히 확대해 6~12개월 내에 인도산 의류를 전세계에 판매할 계획이다. 로이더는 중국계 울트라 패스트패션업체 쉬인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인도 최대 소매업체 릴라이언스 리테일과 생산시설 확장에 나섰다 보고했다. 양사는 1년 안에 인도 공급업체 수를 150개에서 1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쉬인은 2018년에 인도에 진출했으나, 2020년 인도와 중

국 간 국경 긴장이 고조되면서 판매금지조치를 당한 바 있다. 지난 2월 쉬인은 릴라이언스 리테일의 모회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인도 시장에 재진출했고, 현지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현지 앱을 출시했다. 로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쉬인은 미국과 영국 웹사이트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인도산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출시 목표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이며 공급업체 기반을 얼마나 빨리 확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쉬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가 의류를 중국 내 7000개 생산업체에서 공급받아 약 150개국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 관세정책 변동으로 면세수입이 불가능해지며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CNBC 보도에 따르면 관세정책 변동 전인 3월에 비해 쉬인의 5월 일일 활성 이용자는 25% 감소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리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 합변의 법률상식

### M&A를 통한 사업 확장 시 유의할 법적 사항

PT PMA(외국인 투자회사)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은 매우 매력적인 전략이 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의 M&A는 외국인 투자 규제, 계약법, 세무, 노동법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동반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M&A를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인도네시아 내 M&A의 개요와 제약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M&A를 통해 현지 기업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산업별 외국인 지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Positive Investment List'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 에너지, 건설 등 일부 분야는 여전히 외국인 소유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가 PMDN(내국인 회사)인지, PT PMA인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내국인 회사의 인수를 통해 PT PMA로 전환할 경우, 투자 허가 변경 및 OSS 시스템 재등록이 요구됩니다.

#### 2.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

M&A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실사입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① 법률 실사

- 회사 정관, 사업 허가, 지분 구조의 적법성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행정처분

#### 이력 확인

- ② 재무 실사
  - 최근 3~5년간의 회계자료 분석
  - 세무 리스크 및 미신고 소득, 누락 자산 확인
- ③ 인사 및 계약 실사
  - 노동계약 형태, 미지급 급여, 고용분쟁 여부
  - 주요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 및 해지 조건 검토

#### 3. 계약 체결 시 핵심 법적 조항

- M&A 계약(SPA, Sha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할 때는 다음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Representations & Warranties (진술 및 보증): 매도인의 책임 범위 명시
  - Indemnification (손해배상): 손실 발생 시 보상 메커니즘
  - Non-compete (경업 금지): 일정 기간 유사 업종 진출 제한
  - Termination Clause (계약 해지 조항): 일정 조건 미충족 시 해지 조건
- 또한, 인도네시아 법상 외국인 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한 후 BKPM에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합니다.

#### 4. M&A 후 통합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 기업 인수 후에는 경영권 통합 및 조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 조직 구조 변경 시 인사 규정 변경 여부
  - 기존 임원의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절차
  - 내부 통제 체계 통합(회계 시



변호사 함상욱

스템, 보고 체계 등) 노동법상 인수에 따른 고용 승계 및 해고 요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당 해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맺음말

인도네시아에서의 M&A는 복잡한 법적, 문화적 요소를 동반하지만, 철저한 실사와 계약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지 로펌 및 회계 전문가와의 협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 법무법인

- HAMINDO/BAP LAW FIRM,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드립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 사세 확장 F&F · 더네이처홀딩스, 글로벌 패션 기업 제2의 도약

계열사 한곳에 집중... 글로벌 ·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시너지 극대화  
F&F의 '강남' · 더네이처홀딩스의 '용산' 신사옥이 컨트롤 타워  
2곳, 작년 매출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 웃돌아



▲F&F는 올해 4월 강남 테헤란로 신사옥에 입주 완료했다

패션 주요 기업들이 신사옥에 입주하며 비즈니스 다각화에 나섰다.

F&F는 올해 4월 강남 테헤란로 신사옥에 입주 완료했고 더네이처홀딩스는 5월 용산 신사옥에 입주하며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새 사옥을 다양한 비즈니스 컨트롤타워로 구축했다. 분산된 사업부와 계열사를 한 곳으로 통합해 시너지 극대화 와 업무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브랜드와 M&A를 통해 사세를 확장한 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확대와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 등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2025년 1분기 성장은 주춤했다. 신사옥 입주로 재도약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MLB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을 전개하고 있는 F&F(회장 김창수)는 올해 4월 '강남 테헤란로 시대'를 열었다. F&F는 2021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F&F홀딩스와 사업회사 F&F를 분리하고 패션사업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8에 위치한 신사옥은 지상 14층, 지하 5층의 연면적 2만 7024㎡ 규모다. 2008년 준공했던 기존 강남 언주로 541(역삼동)의 사옥은 스타일에 중점을 뒀고 강남 테헤란로 신사옥은 임직원의 액티브 라이프에 초점을 맞췄다.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듀벤티카,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 사업부들을 한 곳으

로 모아 사업부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신사옥 1층과 지상 2층까지는 MLB2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듀벤티카 등 주요 브랜드의 복합 라이프스타일 매장으로 구성했다.

또 사내식당과 피트니스센터는 임직원들의 건강하고 액티비티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회의실과 라운지는 임직원 간 활발한 소통과 창의적 아이디어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창수 회장은 4월 14일 오픈식에서 "2008년 역삼동 사옥 입주 당시 전세계가 금융위기의 해였다. 강남 신사옥으로 이사한 올해도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큰 변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더 큰 리더십과 더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 그리고 더욱 더 발전하는 임직원들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F&F, 2023년까지 매출 급성장... 올해 중국 등 해외서 성장 기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F&F는 2023년까지 매출이 급성장했다. 특히 2022년 연결 매출은 전년대비 66.1% 오른 1조8960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영업이익이 5248.8억원으로 전년대비 62.7%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29%를 차지했다. F&F의 고성장은 중국에서의 MLB 인기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국내에서 크게 성장한 바 있다. 국내 소비 위축과 브랜드 확장 등으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과 1분 매출은 하락하기도 했다. F&F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056억원, 12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0.3%, 5.1%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 매출은 성장을 유지하고 국내 패션 시장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을 전년동기와 근접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서는 MLB의 매장 리뉴얼을 통한 질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디스커버리 해외 진출이 향후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고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면서 하반기 중국 매출이 본격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F는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듀벤티카, 세르지오 타키니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이다. 아시아 No.1 브랜드로 성장한 MLB에 이어 지난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역시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 K-패션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다.

2004년 회사를 설립한 더네이처홀딩스는 5월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신사옥 시대를 열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의 전체 면적 4941㎡(약1495평) 규모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기존 용산구 새창로에 위치한 구 사옥은 디자인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효로3가의 신사옥에는 주요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브롬톤런던, 마크곤잘레스를 비롯해 계열사인 배럴, 데우스엑스마키나코리아 등이 입주했다.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14층 테라스 및 비즈니스 회의실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나무와 식물 등으로 '숨'이 있는 14층 테라스는 식당과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임직원들이 점심 식사와 다양한 행사 등에 이용된다. 다양한 비즈니스 회의실과 대강당 등도 갖췄다.

1층 '히스토리 월(History Wall)'에서는 회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층 소룸에는 주요 브랜드 상품을 볼 수 있다. 1층과 2층을 계단식으로 연결돼 있다. 대형 벽면의 '그랜드 월' 스크린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퍼패럴과 배럴 등의 브랜딩 영상이 모든 이의 시선을 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라이선스를 취득 후 가

방, 캐리어, 의류 등으로 확장해 왔다. 2017년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와 신발 사업과 2019년 홍콩 및 대만 진출하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이후 계열사 브랜드를 포함하며 배럴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중국 진출(2022년), 마크곤잘레스(2023), 브롬톤(2023년), 데우스엑스마키나



▲더네이처홀딩스는 5월 용산 신사옥에 입주하며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선다.

를 전개하며 제2도약에 나서고 있다.

**더네이처홀딩스, 브롬톤런던 ·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등으로 성장 동력 확대**

더네이처홀딩스는 2023년까지 매출이 급성장했다. 2022년 매출은 전년대비 대비 34.4% 급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대비 908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은 매출이 감소했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169억원, 영업이익 30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1% 급감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주요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비롯해 신규 사업으로 성장을 꾀한다. 2023년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중국 내 사업 전개를 위해 디즈니

차이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북경, 상해, 난징 등 주요 쇼핑몰에 직영 매장을 오픈했다. 2024년 상반기 자회사를 통해 호주 의류브랜드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의 지분을 취득했고 아웃도어 액티비티 기반의 패션 의류기업으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2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상승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올해 1분기 내수 시장 기반 재정비에 집중된 결과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된 만큼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정체성 강화와 신규 사업인 브롬톤 런던을 내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특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의 브롬톤런던은 4월 오픈 후 3일간 매출 7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는 종속회사 디아엠홀딩스를 통해 전개하는 모터스포츠 브랜드 '데우스 엑스마키나'를 통해서도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향후 글로벌 사업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케이투코리아그룹은 2019년 강남구 자곡동 신사옥에 입주하며 강남 시대를 열었다. 신사옥은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3만8738㎡ 규모다. 아웃도어 브랜드 K2와 노르디스크 및 아이더, 스포츠 브랜드 다이나핏, 골프 브랜드 와이드앵글, 안전화 브랜드 케이투세이프티가 별도 법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케이투코리아그룹 2024년 매출은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인천서 아시아나 탈 때 대한항공 환승 내항기 예매 가능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4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예매할 때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김해(부산)·대구공항 환승 내항기를 함께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출발지나 도착지를 지방 공항으로 설정하면 인천공항 환승 여정이 자동으로 나타나 한번에 예매를 마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부산~인천(매일 5회), 대구~인천(매일 1회) 노선에서 환승 전용 직항 내



▲인천공항 대한항공 · 아시아나 여객기

항기를 운항한다. 이들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환승하는 승객만 탈 수 있다. 기존에 예약한 인천 출발 국제선 여정에 내항기 구간 추가를 희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나 발권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포스트]

# 인도네시아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관세청 사기 사칭 주의 안내 자료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거래 및 다양한 금융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민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현지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와 대사관은 이러한 사기 시도에서 한국 국민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인도웹 등 일부 교민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시 대금만 편취하거나 물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 또한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사기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피싱 및 스미싱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자들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콜센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

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한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융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사기를 의심하고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본인이 알고 있는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및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민 개개인의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외교부와 대사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 및 링크를 경계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연락은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및 관계 형성에 신중을 기하며, 만난 적 없는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사기 가능성을 높게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지역 총영사관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교민 사회 전체의 경계심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인포스트]

## 관세폭탄에 광고비 삭감까지, 테무 美매출 25% 떨어져

### 광고지출 유럽 등으로 전환...쉬인 美매출은 회복세



▲테무와 쉬인, 두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국매출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이후 미국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테무의 매출이 급감했다. 반면 쉬인의 매출은 회복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세컨드 매저(Bloomberg Second Measure)의 카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테무의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주간 매출은 1년 전보다 25% 이상 감소했다. 이는 쉬인, 월마트, 아마존 등과 대조되는데, 이들 플랫폼의 주간 매출은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휴전 이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매출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테무는 광고 지출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해 슈퍼볼 광고 등 미국 소비자 대

상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들였던 전략과 대조된다. 분석 회사 애플로잉 글로벌(AppGrowing Global)에 따르면, 4월 10일 이전 미국에선 매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테무 광고가 새로 생성됐지만, 현재는 그 수가 수십 개 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6월에는 신규광고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수년간 소형 택배에 대한 관세 면제를 이용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의류와 생활용품을 면세로 배송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인의 미국 매출은 최근 몇 달 동안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블룸버그 세컨드 매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매출 감소를 반전시켜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쉬인은 월마트의 이커머스 플랫폼 수치를 유사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테무 대변인은 매출과 광고 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여러 지역의 현지 상인들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개인 납세자(Orang Pribadi)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SP2DK 발송 및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무당국의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의 강화와 시스템 기반의 관리 체계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으며,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2017을 공표하였다. 이어서 재무부 규정 PMK No.70/PMK.03/2017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8년 PMK No.19/PMK.03/2018로 개정되었다. 올해부터 Coretax System 운영으로 해당 규정은 작년 8월 다시 개정되어, PMK No.47/2024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

근에 관한 “기술적 지침(PMK No.70/2017)”의 개정안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특징은 아래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요약과 같이 연말기준으로 재산과 채무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작년말 신고된 순재산액과 금년말 신고된 순재산액의 차이 즉 순 재산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기 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누락된 재산은 앞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찾아 내기 때문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금융거래



김재훈 대표

및 자산 관련 정보가 세무 당국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세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재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참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l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 친환경: NOx 40ppm 이하
- 증기건도: 98%이상
- 보일러효율: 99%이상
- 연소제어: 비례제어



###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 컴팩트한 설계: 폭 1,960~2,730mm
- 증기건도: 98%이상
- 보일러효율: 90%이상
- 연소제어: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위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L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광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 중국, 인도네시아 '10일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 대상국에 추가



▲ '상하이 레고랜드' [상관신문 캡처]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10일 무비자 환승 제도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해당 프로그램은 총 5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경 간 이동성을 촉진하고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새로운 정책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제 중국 내 24개 성급 지역에 지정된 60개 항구 중 어느 곳으로든 입국할 수 있으며, 제3국으로 가는 여정 중이라는 조건 하에 최대 10일간 비자 없이 중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비자 환승 정책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NIA)이 발표한 것으로,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방문, 문화 교류와 같은 단기 활동을 허용한다. 다만, 취업, 유학, 언론 활동은 해당 비자가 없을 경우 여전히 금지된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민들

이 원난성 시샹반나나 광시성 구이린 등 일부 지역에서 단체여행에 한해 최대 6일간 제한적으로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정책은 훨씬 넓은 지역 접근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아세안 국가 및 오피서버 국가인 동티모르 출신 비즈니스 여행자를 대상으로 5년 복수입국 비자를 도입한 데 이은 것이다. 일명 '아세안 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방문 시 최대 18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무비자 환승 확대 조치가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번 조정이 고차원의 개방 전략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인적 교류 심화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범위와 향상된 접근성 이번 10일 환승 허용 조치는 기존 72시간 또는 144시간(3~6일) 짜리 무비자 환승 제도에 비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2024년 12월, 중국은 비자 없는 환승 체류 가능 기간을 240시간(10일)으로 연장하고, 신규 입국지 21곳을 추가했다. 여행자들은 이제 하나의 여정으로 특정 성 내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으며, 안후이성,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등 일부 성 전체 지역에 별도 입국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은 또한 상대적으로 덜 알

려진 여행지를 홍보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북부의 산시성(게임 '블랙 미스: 오펜'으로 유명), 동부의 장시성(자기 생산지로 유명), 남서부의 구이저우성(다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지) 등이 포함된다. **광범위한 비자 자유화 조치** 중국은 동시에 47개국 국민에게 최대 30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제도도 확대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에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남미 및 걸프 지역 국가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변화는 중국 방

문을 보다 쉽게 만들었으며, '중국 여행'을 주제로 한 SNS 콘텐츠 확산과 국제적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총 6,488만 건의 국제 여행자 출입국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2.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무비자 제도를 이용한 입국자는 2,000만 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112.3% 급증했다. 최근 단오절 연휴 기간 동안에만 23만 1,000명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9.4% 증가한 수치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세랑군청, 해고 급증 대비 '정리해고 특별팀' 준비

세랑군 노동이주청(Disnaker-trans)은 최근 동부 세랑 지역 내 두 기업으로부터 해고 계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모던 치칸데 산업단지과 판차타마 산업단지 등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정리해고 여부를 두고 노동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아나 아르디안티 우타미 세랑군 노동이주청장은 "동부 세랑 지역 내 한두 곳의 기업이 해고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는 해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6월 17일 세랑군에서 밝혔다.

디아나 청장은 해당 기업들의 해고 계획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이주청은 기업들이 성급하게 대량 해고를 단행하지 않도록, 생산 공정 효율화 등 대체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생산 공정 부문에서 먼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세랑군 노동이주청은 앞으로 산업 부문에서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리해고 특별팀(Satgas PHK)'을 구성

할 계획이다. 이 특별팀은 노동부(Kemnaker)의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세부 시행을 위한 기술 지침(Juknis)을 노동부로부터 전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디아나 청장은 "정리해고 특별팀 출범을 위해 노동부의 기술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랑 노동이주청은 앞으로도 관내 고용 안정과 지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협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인포스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 삼성물산 패션부문 ‘비이커’, 광폭 성장

### 왜? ‘비이커’ 인가! 높아지는 고객충성도 주목 불황타계, 지속성장 바람직한 이정표로 기대집중



▲비이커가 2025SS에 신규 런칭한 ‘스티치 캠프 블루’

런칭 13년이 지났음에도 매년 두 자리수 성장으로 국내 1위 편집샵의 위용을 고수하는 ‘비이커’. 비이커는 해를 거듭할수록 마니아층이 탄탄해지고 충성도도 높아 불변의 성장 보폭을 보이고 있다. 비이커는 2025년 6월에 정상매장만 44개점으로 매년 10% 이상 확대해가고 있다. 입점 브랜드 개수만도 시즌당 250~300개를 운영 중이며 트렌드에 부합한 제품 신선도와 PB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불황을 무색하게 지속성 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외형측면에서도 삼성물산 측은 매출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이미 2000억 원의 외형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자체 PB 라인인 ‘비이커 오리지널’의 구매 고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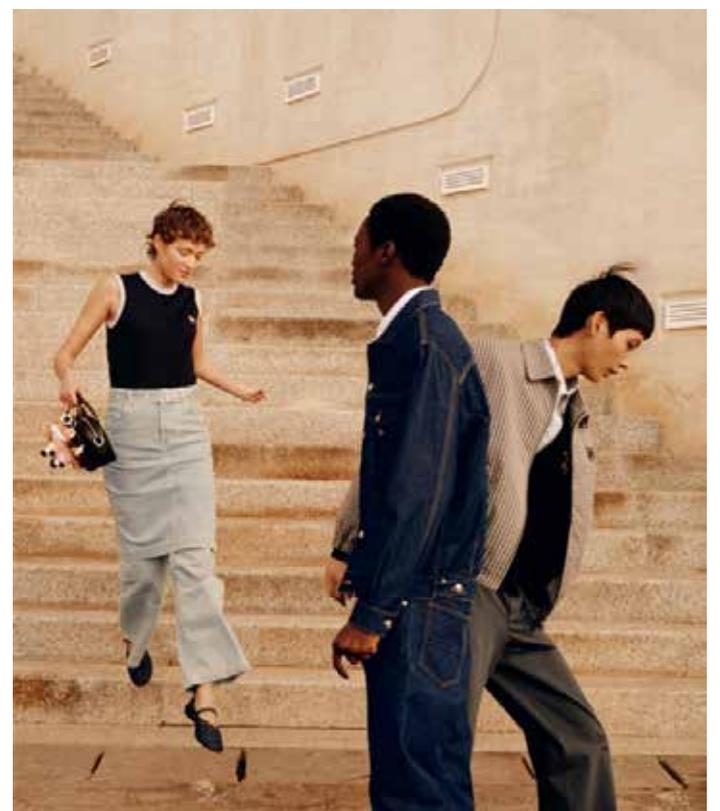
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비이커’의 행보를 통해 급변하는 마켓에서 생존 이상의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정표를 기대하고 있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이커’는 국내 편집샵 시장의 리더로서 트렌드 제언 및 유망 브랜드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독점 수입브랜드의 성공적 운영사례와 함께 PB브랜드의 차별화된 경쟁력,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확장이 성공요인으로 손꼽힌다. 비이커는 입점 브랜드 선정에 있어 각 파트별로 시즌마다 브랜드 선정 세션을 거쳐 방향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별하고 디자인 및 브랜드 스토리의 차별성으로 매력도를 판단하고 있

다. 메종키츠네, 가니, 스튜디오 니콜슨은 사업부 내 인큐베이팅의 성공사례로 별도 모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이커 측은 이후에도 신규 사업화 브랜드는 상시 모색 중이다. 특히 스튜디오 니콜슨은 고급원단과 기능적 디테일, 새로운 실루엣, 우아한 비율을 결합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주요 상권에 단독 매장 5곳을 운영 중이다. 최근 ‘비이커’의 PB브랜드 차별 전략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비이커 오리지널에 이어 그간 축적해온 데이터와 자체 역량을 기반으로 2025년 ‘스티치 캠프 블루’를 신규 런칭했다. 비이커 오리지널이 컨템포러리 감도를 보여주는 일상 캐주얼을 제안한다면 스티치 캠프 블루는 고급 원단과 창의적 스타일로 차별화된 상품을 제안하는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고객 반응이 뜨겁다. 비이커는 PB브랜드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판매 볼륨화가 되면 별도 모노 브랜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실을 강화하며 고객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기적 확장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발돋움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시장 내 독점 브랜드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국내외 다양한 편집샵의 시장 진출로 경쟁이 다각화되는 이때

비이커’는 고객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바이어들 모두가 비즈니스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각오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 모색하고 비이커만의 차별적 경쟁력은 PB사업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비이커가 13년이 지나도 계속 트렌디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컬처 브랜딩 유니온(Culture Blending Union)’의 비에서 볼 수 있듯 패션을 넘어 다양한 창의적 결합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새로

움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한남, 청담, 성수 등 차별화된 3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반으로 거점 마케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다양한 이종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티스트 콜라보, 발렌타인 데이 협업의 경우 매년 꾸준히 지속하며 비이커가 추구하는 컬처를 고객에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비이커를 방문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송태근 사업부장은 “편집샵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내외 신규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입점을 희망하는 ‘비이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발굴한 브랜드들이 스피ن 오프(spin-off)되어 하나씩 성숙해가는 미래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비이커의 비전을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메종키츠네 2025SS 컬렉션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 산업혁명 새 지평 여는 '버티컬 AI' 시대 개막

## 버티컬 AI, 한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전문가' 로 활용 NC AI, 패션 분야 효율 높인 '바르코 아트' 솔루션 첫선

2025년 인공지능(AI) 산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 AI는 '범용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진을 분석하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이제 AI는 점점 더 '산업의 언어'를 배우고 특정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는 전문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버티컬 AI(Vertical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버티컬 AI란 의료 제조 금융 패션 미디어 등 각 산업의 고유한 데이터와 규제, 업무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범용 AI가 만능 공구라면 버티컬 AI는 외과의사의 수술용 로봇이나 금융 전문가의 맞춤형 투자 알고리즘처럼 한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전문가'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화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으로 평가받는다.

버티컬 AI가 각광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밀성'이다. 예를 들어 버티컬 AI기업인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차와 로봇 개발을 위해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Dojo)'를 가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EFLOPS(초당 1경번 연산)의 연산 성능을 자랑하며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D1칩이 3000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주행 데이터, 로봇 센서 데이터, 에너지 소비 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한다. 그 결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물론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옴니머스 로봇의 물체 인식 정확도를 98.7%까지 끌어올렸다.

두 번째는 '경제적 파급력'이다. 또 다른 버티컬 AI의 대표기업인

팔란티어는 금융 의료 국방 등 각 산업별로 '수직 온톨로지(Vertical Ontology)'를 구축해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9억 달러 규모 AI 시스템 구축 계약, 300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환자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팔란티어의 영향력은 이미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다. 팔란티어의 강점은 산업별로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용 AI 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예를 든 테슬라 역시 도조 컴퓨터를 이용, 매일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차량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완전 자율주행(FSD) 알고리즘의 학습 시간을 7일에서 1.7일로 76%나 단축시켰다. 그 결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도조 슈퍼컴퓨터 자체가 2025년 1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규제와 윤리'의 문제를 AI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의료 분야의 HIPAA, 금융 분야의 GDPR 등 산업별로 복잡한 규제가 존재한다. 기존의 범용 AI는 이런 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버티컬 AI는 산업별 규제와 윤리 기준을 알고리즘에 내재화해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버티컬 AI는 산업의 고유한 속제를 해결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혁신의 중심에는 앞서 예를 든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선도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버티컬 AI의 무대는 테슬라와 팔란티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내에도 대표 버티컬 AI



▲엔씨소프트의 AI 전문 법인 NC AI가 패션분야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AI 솔루션 '바르코 아트 패션'을 제공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 NC AI,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완성도 높은 패션 솔루션 제공

NC AI는 엔씨소프트의 AI 전문 법인으로 'Everyone can be a Creator'라는 미션 아래 게임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창작과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오디오, 그래픽스, 번역, 챗봇 등 다양한 AI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과 외부 협업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으며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NC AI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패션 산업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바르코VAR-CO LLM'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에 능통한 대형언어모델로, 텍스트 생성과 번역, 챗봇, 정보 추출 등 다양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는 '바르코 아트' 솔루션이 시장에서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솔루션은 디자이너가 '스트리트 캐주얼'과 같은 키워드만 입력해도 3.2초 만에

10종 이상의 의류 디자인을 자동 생성한다.

MLB와 디스커버리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F&F가 이미 이 솔루션을 유료로 도입해 신상품 기획과 디자인, 생산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실제로 F&F는 기존 6개월 걸리던 제품 개발 주기를 3개월로 줄였고 AI가 제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신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현재 NC AI의 패션 AI 솔루션은 F&F 외에도 10곳 이상의 국내 주요 패션기업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패션 업계의 전문 용어와 트렌드, 실제 생산 공정까지 반영한 전용 베이스 모델을 구축해 단순 이미지 생성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NC AI는 MVC 2025에서 '아바타시프트(Avatarshift)'라는 실시간 3D 아바타 생성 기술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를 입력하면 AI가 0.2초 만에 감정을 표현하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은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구현됐으며 전시회 현장에서 1,000여 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받았다. NC AI의 음성합성·다국어 번역 기술은 영화 더빙 작업 기간을 2주에서 3일로 줄이고 번역 비용을 75% 절감하는 등 미디어 산업에도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 분야에서는 마케팅 특화 모델로도 각광 받고 있다. 상품 태그만 입력해도 AI가 즉시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 및 영상 등 콘텐츠를 생성해 상품 페이지 제작 시간을 70% 이상 단축시키고 있다. NC AI는 SaaS 플랫폼을 향후 출시해 월정액으로 패션 디자인 툴과 실시간 더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금융 분야에서도 버티컬 AI의 대표기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Saliient AI는 부채 상환 알림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간 200만 달러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고객의 음성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해 최적의 상담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상환률을 35% 향상시켰다. 이처럼 버티컬 AI는 각 산업의 특수한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고 인간 전문가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버티컬 AI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특정 기업이 고품질 데이터를 독점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AI의 편향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윤리적·법적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유전자·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등 초개인화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제조 공장 내 다수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를 조율하는 자율 협업 네트워크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본다.

맥킨지(McKinsey)는 "2030년 버티컬 AI가 글로벌 GDP의 12%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IDC는 "의료 제조 금융 3대 분야가 전체 시장의 65%를 점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산업의 언어와 규제를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전문가'로서의 AI가 있다.

결국 버티컬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개척한 이 분야에서 NC AI, 루닛 등 국내 기업들도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산업의 숨겨진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고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 2025년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동반자'로써 인큐는 이 새로운 동료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버티컬 AI의 시대, 산업혁명의 새 지평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PT. YOU YEOUNG EMBROIDERY

###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의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명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권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말실 75D / 2합 (144M)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스판 말실 60S / 2합 (5,000M~50,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용도**  
신발, 가방, 모자, 텐트, 장갑, 의류, 침대, 소파, 시트, 특수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 2025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6/2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1	BANGUN MAJU LESTARI	2025.01.13	50 Juta		
2	NOTOS (WOON)	2025.01.13	15 Juta		
3	TRADEWIND INDONESIA	2025.01.13			3,5 Juta
4	DAEDONG INTERNATIONAL	2025.01.13			3,5 Juta
5	MYUNGSEONG MACHINERY	2025.01.13			3,5 Juta
6	UNGARAN INDAH BUSANA	2025.01.13			3,5 Juta
7	SEYANG ACTIVEWEAR	2025.01.13			3,5 Juta
8	SAMSAM JAYA	2025.01.13			3,5 Juta
9	SEYOUNG INDUSTRY	2025.01.13			3,5 Juta
10	AAB	2025.01.13			3,5 Juta
11	BLUE ROSE NARADO	2025.01.14			3,5 Juta
12	PURNAMA ASIH SUR	2025.01.14			3,5 Juta
13	INKORDAN	2025.01.14	15 Juta		3,5 Juta
14	DREAMWEAR	2025.01.14			3,5 Juta
15	WOOSHIN GARMAENT	2025.01.15			3,5 Juta
16	TPINC TRADING	2025.01.15		30 Juta	
17	KAHOINDAH	2025.01.16			3,5 Juta
18	GAYA INDAH KHARISMA	2025.01.16	15 Juta		
19	OROM CONSULTING	2025.01.16	15 Juta		
20	DASAN PAN PICIFIC	2025.01.16			3,5 Juta
21	DTL	2025.01.17	15 Juta		
22	KEUMKWANG	2025.01.17	15 Juta		
23	TUNGGAL INDOTAMA ABADI	2025.01.17	15 Juta		
24	BOSUNG	2025.01.17			3,5 Juta
25	DOOSAN CIPTA BUSANA	2025.01.17		30 Juta	
26	ZIMMOAH MARINE TRANS	2025.01.17			3,5 Juta
27	ZIBEN INDONESIA	2025.01.17			3,5 Juta
28	JUN H INDONESIA	2025.01.20			3,5 Juta
29	GAYA MAKMUR	2025.01.20			3,5 Juta
30	HESED	2025.01.20	15 Juta		
31	PERTIWI INDO MAS	2025.01.20			3,5 Juta
32	L&B INDONESIA	2025.01.20			3,5 Juta
33	INDO BOX	2025.01.20			3,5 Juta
34	DONGJUNG	2025.01.21			3,5 Juta
35	KG FASHION	2025.01.21			3,5 Juta
36	SEJIN GLOBAL	2025.01.21			3,5 Juta
37	YOUNHEUNG MEGASARI	2025.01.22			3,5 Juta
38	CITRA UNGGUL PERKASA	2025.01.22	15 Juta		
39	KARYA TRI ABADI	2025.01.23			3,5 Juta
40	WINNER INTRNATIONAL	2025.01.24		30 Juta	
41	DELTA MATE MAJALENGKA	2025.01.25			3,5 Juta
42	DELTA MATE INDONESIA	2025.01.25			3,5 Juta
43	UNICORN MACHINE	2025.01.30			3,5 Juta
44	SCENIC INTERNATIONAL	2025.01.30			3,5 Juta
45	KNH GARMINDO JAYA	2025.01.30			3,5 Juta
46	HARINDO	2025.01.30			3,5 Juta
47	MAJUEL	2025.01.30			3,5 Juta
48	SOLVE IT	2025.01.31			3,5 Juta
49	MINU	2025.01.31			3,5 Juta
50	YB APPAREL JAYA	2025.01.31			3,5 Juta
51	HARAPAN GLOBAL	2025.01.31			3,5 Juta
52	JIN MYOUNG	2025.02.03			3,5 Juta
53	PELITA HARAPAN ABADI	2025.02.03			3,5 Juta
54	MANITO	2025.02.06			3,5 Juta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55	HANSAE INDONESIA UTAMA	2025.02.06		30 Juta	
56	JM TECH	2025.02.10			3,5 Juta
57	PETRA SAKTI	2025.02.10		20 Juta	
58	AMOS INDAH INDONESIA	2025.02.12			3,5 Juta
59	HANSOLL	2025.02.14		30 Juta	
60	AAM	2025.02.14			3,5 Juta
61	PERMATA GARMENT	2025.02.14			3,5 Juta
62	RINA JAYA GARMENT	2025.02.14			3,5 Juta
63	DONGYANG NISUSINDO	2025.02.14			3,5 Juta
64	C-SITE TEXPIA	2025.02.17			3,5 Juta
65	SAMKYUNG JAYA	2025.02.18			3,5 Juta
66	LIMANTARA INDAH	2025.02.18			3,5 Juta
67	ING INTERNATIONAL	2025.02.18			3,5 Juta
68	MUARA TUNGGAL	2025.02.18			3,5 Juta
69	KOREA VILENE	2025.02.19			3,5 Juta
70	DAYUP INDO	2025.02.20			3,5 Juta
71	SEOWON	2025.02.24			3,5 Juta
72	DAEHAN GLOBAL	2025.02.24		30 Juta	
73	SAMSHING INDONESIA	2025.02.24			3,5 Juta
74	SUKWANG INDONESIA	2025.02.25		26,5 Juta	3,5 Juta
75	TAEWON	2025.02.26			3,5 Juta
76	BUSANA INDAH GLOBAL	2025.02.27			3,5 Juta
77	PARAN INTERNATIONAL	2025.03.03			3,5 Juta
78	GOLDEN GARMENTS	2025.03.05			3,5 Juta
79	GLOBAL TRIMS CREATOR	2025.03.05			3,5 Juta
80	INKORDAN	2025.03.06		15 Juta	
81	ELITE	2025.03.07			3,5 Juta
82	WONEEL MIDAS	2025.03.07			3,5 Juta
83	HANSOL PLEATS	2025.03.07			3,5 Juta
84	GREENLON	2025.03.11			3,5 Juta
85	SUCI PINTAK PLEATS	2025.03.11			3,5 Juta
86	MUTIARA BUSANA INDAH	2025.03.12	15 Juta		
87	BLUE SEA GLOBAL	2025.03.12			3,5 Juta
88	KIDO MULIA INDONESIA	2025.03.12			3,5 Juta
89	PESAT GLOBAL	2025.03.14			3,5 Juta
90	YONGJIN	2025.03.18			3,5 Juta
91	SUN SUKA ABADI	2025.03.20			3,5 Juta
92	GUNUNG SALAK SUKABUMI	2025.03.20			3,5 Juta
93	TA GLOBAL	2025.03.24			3,5 Juta
94	WORLD STAR GARMENT	2025.04.28	15 Juta		
95	SJ CONSULTING	2025.05.09			3,5 Juta
96	HJ BUSANA INDAH	2025.05.22			3,5 Juta
97	HWASHIN GLOBAL	2025.05.23			3,5 Juta
98	PPF	2025.05.28			3,5 Juta
99	JEFF SOURCING	2025.05.28			3,5 Juta
100	업체미상	2025.05.30			3,5 Juta
101	DK INTERNATIONAL	2025.06.02			3,5 Juta
102	GREENTEX INDONESIA	2025.06.02			3,5 Juta
103	YURI INDO APPAREL	2025.06.03			3,5 Juta
104	SUNGBO JAYA	2025.06.03			3,5 Juta
105	업체미상	2025.06.09			3,5 Juta
106	BUMA APPAREL INDUSTRY	2025.06.10			3,5 Juta
107	KOTEK INDAH	2025.06.10			3,5 Juta
108	DAESANG INTERNATIONAL	2025.06.12			3,5 Juta



###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주요생산품목

#####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 ·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 ·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 진공펌프 (Vacuum Pump)

· 스크류 진공펌프

##### 압축공기 제습장치

·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 라인쿨러  
· 에어필터

####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an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Lippo Cikarang지점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프리마리오, 평범한 일상 속에 담은 개성**  
 프리마리오가 여름 시즌을 맞아 해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더해줄 그래픽 반팔 티셔츠 '에덴 하우스(Eden House)' 시리즈를 제안한다. 이 티셔츠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그래픽을 중심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빈티지한 분위기의 라글란 소매와 레트로한 컬러조합이 특징이다.

## 주요브랜드 2025 광고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앤아더스토리즈, 푸른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여름 하늘**  
 앤아더스토리즈가 고요한 바다의 푸른빛과 끝없이 펼쳐진 여름 하늘을 담아낸 섬머 컬렉션을 출시했다. 키워드는 '특별한 모먼트를 위한 컬렉션'이다. 세련된 오피스 룩부터 눈부신 이브닝 룩까지 빛나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보인다. 볼륨감 있는 러플 블라우스와 정교한 엠브로이더리 슬리브리스는 보헤미안 무드를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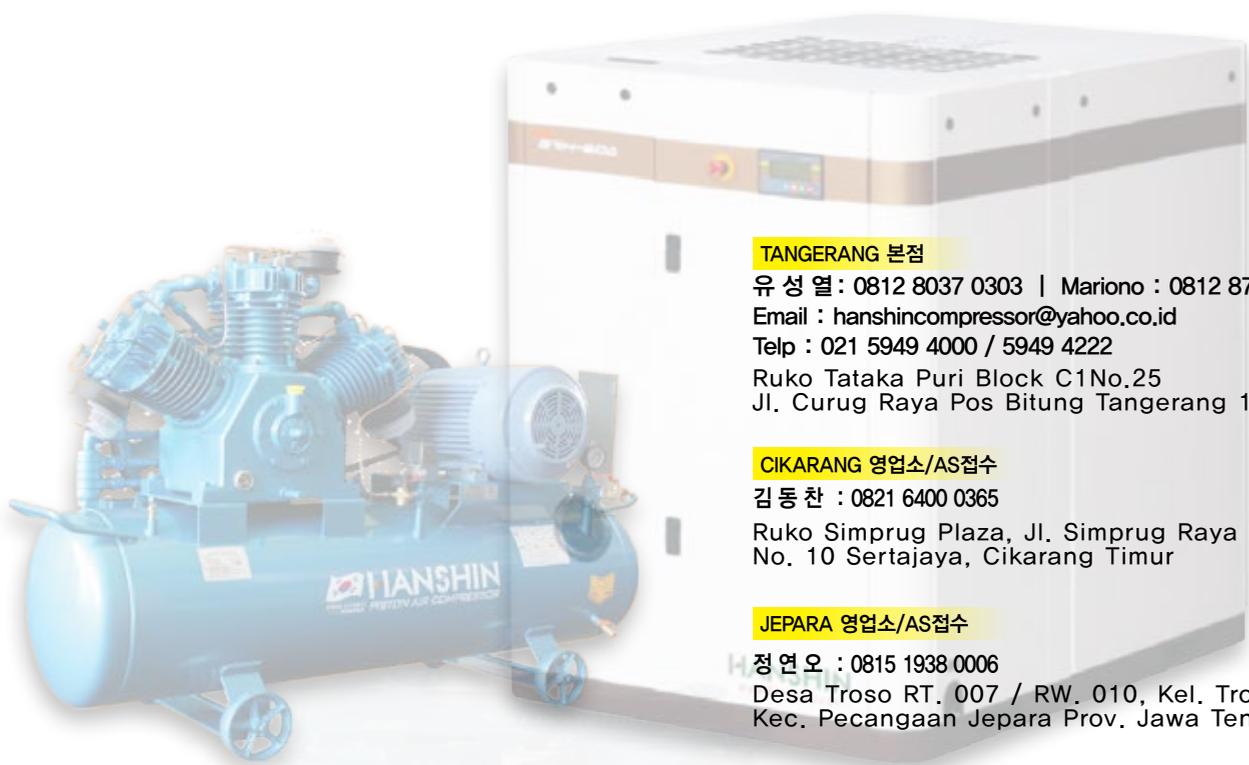
**듀이듀이, 로맨틱 감성의 여름 바캉스**  
 듀이듀이가 바캉스 시즌을 맞아 새로운 미니 컬렉션 '어 로맨틱 이스케이프(A Romantic Escape)'를 선보인다. 컬렉션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단 하나의 휴식'이라는 테마 아래, 로맨틱한 무드와 실용성을 겸비한 이지웨어 아이템으로 구성되었다. 여행에서 마주하는 낭만적인 감정과 여유로운 순간들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슬로우롤리, 청량한 무드로 완성된 데일리룩**  
 슬로우롤리가 2025 섬머 퍼스트 컬렉션 '메리로즈(Merri Rose)'를 공개했다. '데일리룩 맛집'으로 알려진 슬로우롤리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여름의 내추럴한 감성과 일상 속 아름다움을 스타일리시하게 담아냈다. 컬렉션은 싱그러운 꽃과 다양한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감각적인 컬러 매치와 브랜드 특유의 청량한 무드로 완성되었다.

# HANSHIN

##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